

시론



송승현 목사
안성중앙교회

행복한 가정 사용설명서

야 할세 가지 덕목이 있다.

첫째는 '인내'다. 존 그레이는 저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통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고 강조한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수많은 갈등을 겪는 이유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모(▲)와 네모(■)가 만나 둥근 원(●)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모난 부분을 자르고 깎아내는 수고가 따르며,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다. 우스갯소리로 가정을 동물 농장에 비유하며 "여우 같은 아내 1마리, 곰 8마리, 토끼 같은 자녀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남편 곰 1마리 외에 왜 7마리의 곰이 더 필요할까? 영어 단어 'Bear'는 명사로 '곰'이지만, 동사로도 '참다, 견디다'라는 뜻을 가진다. 부부 사이에는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는(bear, to bear, forbear)' 7마리의 인내 곰이 더 필요하다는 재치 있는 표현이다.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다려 주는 것이다. 살아온 환경과 바라본 목표가 달랐던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한곳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는 '순종'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간에 순종을 넘어 피차 복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권면한다. 복종이란 맹목적인 굴복이 아니라, 가까이 양보하고 내 뜻보다 상대방의 뜻을 먼저 세우주는 삶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겔사마에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

시며 온전한 순종으로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러한 자발적 순종과 섬김이 있을 때 비로소 가정에 행복의 꽃이 피어날 것이다.

셋째는 '사랑'이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느낌)이 아니라 행동(실천)이며,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이자 현재 진행형이다.

조엘 맨비는 저서 『사랑의 리더십』에서 "사랑은 거북이도 뛰게 한다"고 표현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제로 풀어보자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과거'의 은혜를 바탕으로 하고, 소망은 장차 이루어질 '미래'를 향해 있다면, 사랑은 지금 이 순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어제는 지나간 역사이고(Yesterday is history), 내일은 알 수 없는 미스터리지만(Tomorrow is a mystery), 오늘은 선물이다(Today is a gift).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선물(Present)이라 부른다."는 유명한 격언이 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질 '현재(Present)'라는 축복 속에서,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의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라는 자의 모습이며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는 아름다운 실천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세우신 두 가지 거룩한 제도가 있으니, 바로 가정과 교회다. 특히 가정은 천지창조 사역의 절정이다.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가정을 통해 태어나고 양육되며, 그 과정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C.S. Lewis)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가리켜 '에로스(Eros)의 사랑으로 태어나, 스토르게(Storge, 혈육의 정)의 사랑으로 양육되고, 필리아(Philia, 우정)의 사랑으로 성숙하며, 마친내 아가페(Agape, 무조건적 사랑)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존재'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가정의 구성원인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바로 알아야 한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나의 온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

社說

총회를 마치고

예수교대한성결교회는 선교 120주년 및 105회 정기총회를 지난 5월 18일-19까지 원주 오크벨리에서 '재림의 신앙으로 열방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되었다.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고, 사역들을 계획하고 예정호가 출항하게 된 것이다. 새 회계연도에는 어떤 문제들이 높은 파도처럼 밀려올지 모르지만, 이 예정호의 주인되시고 선장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감사와 찬양 중에 전진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에 열려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한 모든 교단 신하 기관들과 교회들이 새로운 총회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 모든 결성인들의 소망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지체 없이 부흥의 파도를 타고 전진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총회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총회 장소의 문제이다. 총회가 개최되는 곳은 그 총회가 상징하는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에 대한 가치를 재고하며,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난 번과 금번의 장소를 원주 오크벨리에서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한 유감이다. 먼저, 모인의 장소가 전체가 모이기에 너무 밟고, 시간적으로 모이기에 부적합한 것이다. 또한 상징성에서도 예정교회의 총회가 꼭이런 곳에서 개최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너무 많은 지출이 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의미적으로 장소가 적합하지 못하다. 물론 이곳에 정할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영적 의도와 화합과 성결성을 상징하거나 역사성을 고려할 만한 지역이나 장소를 선택하는 마음이 앞으로 장소 선정을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둘째, 총회의 권위와 임원선출의 문제이다. 총회가 새 임원을 선출하고 직임을 위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함에 총회회의 의의와 행사하여야 한다. 특히 신하 기관들의 인사 문제는 그동안 총회 파송인사와 각 재단에서의 선임에 대한 문제로 갈등을 해왔던 것이다. 먼저, 우리 교단이 초기부터 성결대학교 중심으로 교단이 운영되었기 때문이요, 이러한 이면에는 정치적 인사를 파송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총회장이 신하 기관의 임원으로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총회장이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회'의 서기나 감사로 있으니, 무슨 권위가 세워지겠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원으로 선출되면, 일 년간 신하기관의 이사진을 잠정 보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선거 공약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실행하는 일이다. 선거 때마다 교단을 위한 좋은 비전과 정책들을 구호처럼 외쳐왔다. 그런데 정치적 목적이 성취되면 그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에너지들을 함께 모으면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먼저, 총회는 행정을 디지털화하고, 모든 신하 기관들과 교회의 플랫폼(platform)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하 기관들과 교회에 시대에 맞는 상호간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도록 하는 일이다. 또한 재정적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평신도들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일이다.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총력을 체계적으로 쏟아 부어야 한다. 젊은 일꾼들을 세우도록 신하 교육기관들과 협력하고, 목회자들을 위한 투자와 훈련, 그리고 새로운 사역처를 개발하는 일이다.

* 오피니언 면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신문사

등록번호 서울 다 50663(2003년 9월 17일 창간 /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을 준수합니다.

발행인 이종만 사장 김충현 편집인 권순달 후원회장 박근주 인쇄인 배성현
(주)성경신문사 030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왕산로 1가길 11(헬스동 1-29 총회회관)
대표전화 070-7132-0091~5 홈페이지 www.sknews.org
광고 신청 안내 070-7132-0091 독자기고·제보 sknews12@daum.net

● 구독료 : 1개월 4,400원 / 1년 44,000원(VAT 포함)
● 후원·입금계좌 : 국민은행 533301-01-16871 4(주식회사 성경신문사)

칼럼



김영국 목사
세에덴교회

총회와 연차대회, 꼭 같이 해야 하는가?

끼는 것이 걸으려는 효율적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거룩한 성총회'의 본질인지 진지하게 자문해야 한다.

첫날 점심 이후에 모여 개회 예배와 성찬식, 내빈 인사를 마치고 나면 곧바로 심리와 임원 선거가 이어진다. 저녁 식사 후에는 곧이어 연차대회가 열린다. 제120년 차대회 및 제105회 총회라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교단의 축제치고는 일정이 너무도 팍팍하다.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과 36개 지방회, 1천여 교회에서 모인 600여 명 이상 되는 대의원이 매년 시간에 쫓기듯 모임을 마쳐야 한다면, 그곳에서 어찌 깊은 영적 소통과 바른 토론이 이루어지겠는가.

타 교단의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은 얼마 전 전국목사장로기도회를 열었다. 1964년부터 이어온 이 기도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만으로 2박 3일을 꽂 채운다. 대의원이라는 행정적 신분을 내려놓고, 교단의 목회자와 장로들이 한데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는 모습은 참으로 인상 깊었다. 본래 우리 성결교회는 그 누구보다 뜨겁게 찬양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영성을 지닌 교단 아니던가.

이제는 매년 시간에 쫓기는 총회를 반복할 것인지, 아

내면 다시 옛날의 2박 3일로 돌아갈 것인지를 두고 진지하게 기도할 때이다. 이에 예성의 한 목회자로서 '총회'와 '연차대회'의 분리 개최를 제안해 본다. 총회에 앞서 연차대회를 먼저 열고 온 교회가 기도로 힘을 모으는 것이다. 연차대회는 전국 교회의 목회자와 장로, 평신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로지 말씀과 기도, 찬양에만 전념하는 영적 대각성 집회로 전환해야 한다. 교단 내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목회자들과 젊은 리더들을 세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반면 총회는 대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성숙한 토론 문화 속에서 교단의 행정과 회무를 바르게 처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후임 담임목사를 구하지 못해 은퇴 이후에도 목회를 지속해야 하는 엄중한 현실 앞에 우리는 서 있다. 영성이 살아야 교단이 살고 교회가 산다. 연차대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총회를 통해 교단의 올바른 방향성을 고민하며 머리를 맞댄다면, 우리 교단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부흥하는 교단으로 거듭날 것이다.

우리는 늘 거룩한 성총회(聖總會)를 위해 기도하며 매년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성총회란 전국 각 지방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 대의원들이 모여 교단의 중요한 회부를 처리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하며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귀한 자리이다. 그렇기에 우리 선배들은 2박 3일이라는 시간을 성별하여 총회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총회 일정은 1박 2일로 축소되었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회부와 선거, 연차대회까지 번갯불에 콩 볶듯 치러내고 있다. 바쁜 현대 사회와 목회 일정 속에서 하루를 줄여 시간과 재정을 아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선교 120년차대회 및 제105회 총회
총회 임원으로 당선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부회계

회장 **진순천** 목사
성은교회

부회장 **이세명** 목사
윤화교회

부회장 **석재진** 장로
세대분교회

김용빈 장로
신수동교회

서기 **이규현** 목사
미포제일교회

부서기 **이민철** 목사
정화교회

회계 **이옥림** 장로
신촌은혜로운교회

부회계 **최희원** 장로
시티미션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서울지방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선교 120년차대회 및 제105회 총회
총회 임원으로 당선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장로부총회장

회장 **박기홍** 목사
좋은이웃성도교회

부회장 **서경원** 목사
다사랑교회

부회장 **박수남** 장로
남부교회

황제돈 장로
신림제일교회

서기 **박요섭** 목사
남부교회

부서기 **장순호** 목사
시민교회

회계 **박정호** 장로
주향한교회

부회계 **윤장성** 장로
서울반석교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서울남지방회**